

금주 미사 독서: 김보미 로사, 황지혜 레지나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리드비나	봉헌금: \$ 190 교무금: \$ 955
금주 미사 복사: 권민호 바오로	감사헌금(유신부님): \$ 100
다음주 미사 복사: 유지원 카타리나	-----
금주 미사 해설: 성인영 마리스텔라	합계 : \$ 1245
다음주 미사 해설: 권민호 바오로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강동현	금주 봉헌봉사: 유지원 카타리나
회 계: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다음주 봉헌봉사: 김태진 하상바오로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4 월 19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k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성경 통독 모임	격주 금요일 (4 월 26 일 저녁 7:00, 장소: 페이스북클럽 참고)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Nielsen Tennis Stadium,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걸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물에서 백 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물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물으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선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013년 4월 13일

[오늘의 성가] 시작: 131 봉헌: 219 성체: 187 파견: 132



발현하신 예수님 알아보기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에는 ‘수덕생활’과 ‘신비생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덕생활의 수덕은 닻을 ‘수(修)’와 ‘덕(德)’으로 이루어져 글자 그대로 ‘덕을 닦는다’ 즉 ‘덕행에 정진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인 그리스말에는 ‘운동선수가 반복해서 훈련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단어를 그리스도교에서 덕행을 수련하는 일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개인적인 일들을 참아가며 매일 열심히 반복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완덕을 이루어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나태해지는 자신을 극복하고 매일 열심히 덕을 닦아야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신비생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에 나타나신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2001 년 봄 BBC 방송국에서는 ‘신의 아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발표하면서 예수님의 얼굴로 추정하는 그림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1 세기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골 자료를 수집하여 평균값으로 작성한 얼굴은 예술가들의 상상에 의해 그려진 유럽사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습이 실제 예수님의 얼굴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얼굴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들이 전해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 이야기에 흥미로운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발현하신 예수님을 열린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발현하신 예수님을 정원지기로 여기다가,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요한 20,11-18 참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한나절을 함께 걷던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다가, 저녁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찬미를 드리신 다음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루카 24,13-35 참조) 오늘 복음에서도 제자들은 물가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다가,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뒤늦게나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시점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친숙한 시간의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유하는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도 사도들은 유다 종교지도자들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퍼뜨림으로써 예수님과 추억을 잊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실천하는 수덕생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공유하는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총으로 신비생활에 참여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공지사항

1. 4 월 사목회의가 4 월 20 일 미사 후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은 5 월 봄 야유회 준비와 성당 홍보 및 선교입니다.
2. 봄 야유회가 5 월 19 일(일요일)에 Elver Park 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식사, 게임 그리고 운동을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사는 5 월 18 일 토요일 5 시에 St. Paul 성당에 있을 예정입니다.
3. 4 월 공동체 식사가 4 월 27 일 미사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1,3 구역 교우님들께서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
4. 4 월 미사 전 묵주기도 지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바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 성경 통독 모임 안내>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금요일에 격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녁 7 시부터 2 시간 동안 통독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녀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세요(전화 : 770 029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성교우 기도모임(계속)>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은 4 월 19 일 (금) 저녁 8 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서단 모집(계속)>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1@gmail.com) 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가대 모집 (계속) >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 리드비나 자매님께 (lidwinahan@gmail.com)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적정리 (계속)>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입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